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이야기의 재건 3 :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 | Part 1. 페테르 포르가츠
Reconstruction of Story 3 : Absolute Time or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 Part 1. Péter Forgács
2016. 11. 30 — 2017. 1. 8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1 : 알레고리, 역사성의 환유
2016. 6. 8 — 7. 23

이야기의 재건 2 : 던컨 캠벨, 오톨리스 그룹,
그리고 와엘 샤키
2016. 8. 10 — 9. 11

이야기의 재건 3 :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
2016. 11. 30 — 2017. 2. 26

이야기의 재건 4 : 다중구조, 이것 또는 저것
2017. 3 — 4(예정)

이야기의 재건 5 : 폴리포니, 가상의 나
2017. 5 — 7(예정)

커버 이미지 : <나 자신의 죽음>, 페테르 포르가츠
Cover Image : *Own Death*, Péter Forgács

Program

Reconstruction of Story 1 :
Allegory, Metonymy of Historicity
June 8, 2016 — July 23,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2 :
**Duncan Campbell, The Otolith Group
and Wael Shawky**
August 10, 2016 — September 11, 2016

Reconstruction of Story 3 :
**Absolute Time or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November 30, 2016 — February 26, 2017

Reconstruction of Story 4 :
Multi-Structure : Ici et Ailleurs
March 2017 — April 2017(TBA)

Reconstruction of Story 5 :
Polyphony, the Imaginary of ‘I’
May 2017 — July 2017(TBA)

서문

이야기의 재건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와 관련된 ‘절대적 시간’은 뉴턴이 말한 고전물리학의 절대적 시간 개념과 상관이 없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벌인 앙리 베르그송의 시간에 대한 개념, 즉 오로지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순수지속의 시간과 흡사하다. 분할된 공간의 연속성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환영이 영화를 탄생시켰지만, 이미지의 운동성은 이미지의 총합체인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인 인간의 몸이라는 프레임과 관계한다. 베르그송 식으로 본다면 인간의 몸에 내재된 정념의 프레임에 반응하는 이미지가 곧 현실이며 역사일 수도 있다.

롤랑 바르트는 ‘카메라에 찍힌 나의 이미지는 실제의 내가 아닌 다른 몸이 된다’¹⁾며 실재와 이미지의 간극을 언급했다. 이 간극을 통해 영화의 시간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유추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야기의 재건 3: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은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이러한 간극을 통찰하고 카메라의 포착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의 일면과 그것을 지각하는 우리의 의식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자 한다. 파운드 푸티지를 기반으로 섬세한 시적 재현을 완성하는 헝가리 독립영화의 거장 페테르 포르가츠, 텍스트로 구현된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국 실험영화 감독 데이비드 개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관점에서 노동 현장의 시공간과 노동자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미국의 아티스트 케빈 제롬 에버슨, 이 세 작가의 주요 작품들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상영된다.

<이야기의 재건 3>의 1부는 주로 과거의 홈 무비 필름을 재구성해 기억과 이미지의 표상을 건드리는 페테르 포르가츠 감독의 대표작을 상영한다. 1929년부터 1969년 사이에 촬영된 아마추어 홈 무비 푸티지를 이용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많은 작품들 중 <다뉴브 엑소더스>, <마엘스트롬-어느 가족의 연대기>를 포함한 6편의 영화 외에 헝가리의 문호 페테르 나더쉬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픽션 <나 자신의 죽음>등 총 8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그의 영화는 기록된 과거의 순간들을 공적 역사와 인위적으로 연결하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다만 홈 무비 필름이 담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중산층 가정의 일상 풍경이 티보르 셈죄²⁾의 미니멀한 음악과 함께 흐르며 몽환적 순간을 연출한다.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면서 때로 반복되기도 하는 그의 영화 속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과거는 죽지 않고 영원히 현재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영화를 통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역사의 흐름을 유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김은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 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조광희 옮김, 열화당, 1998.

2) 페테르 포르가츠는 1978년에 그의 친구인 작곡가 티보르 셈죄(Tibor Szemső)가 창단한 현대음악그룹인 “Group 180”의 멤버로 활약했다. 티보르는 페테르의 많은 영화 및 설치작품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Introduction

'Absolute time', related with the third subject of *Reconstruction of Story* series,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cept of absolute time in classical physics introduced by Issac Newton. Rather, this concept is similar with a pure duration grasped only through intuition, a theory Henri Bergson proposed through his debates with Albert Einstein. The illusion of movement made by the continuity of divided spaces gave birth to cinema, but the mobility of an image is related with the frame of the human body, the subject who grasps an object as the wholeness of an image. In terms of Bergson, it may be that an image reacting to the frame of affection inherent in the human body is reality and history.

Roland Barthes mentioned the gap between existence and an image, saying 'once I feel myself observed by the lens, everything changes: I constitute myself in the process of posing.'¹⁾ Through this gap, the physical time of a film consequently moves to a metaphysical area where we can induce a variety of analyses. *Reconstruction of Story 3: Absolute Time or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introduces three artists who have penetrated into such a gap between existence and an image, and who pose questions on the aspect of being that is surfaced through the camera and our consciousness that perceives it. The program also holds master classes on the three filmmakers: Péter Forgács (the great Hungarian independent filmmaker who creates a delicate poetic reproduction of film footage), David Gatten (an American experimental

filmmaker who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mage incarnated with text and language), and Kevin Jerome Everson (an American artist who observes the time and space of the workplace and the behavioral patterns of laborers from an Afro-American viewpoint). Their major films are being screened in two sections.

The first part of *Reconstruction of Story 3* screens eight representative works of Péter Forgács, who touches on the representation of memory and images through recomposed home-movie footage. Of the films he has made by infusing a vitality into private home-movie footage shot by amateurs from 1929 to 1969, this program introduces six films, including *The Danube Exodus*, and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and two other films, including *Own Death*, a film based on one of the Hungarian novelist Péter Nádas' short stories. His films do not convey a message by artificially connecting the moment of a recorded past with official history. Merely, he creates dreamlike moments when the flow of time ceases, while everyday scenes of the petit bourgeois before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home-movies are placed together with minimal music by Tibor Szemző.²⁾ The images that move in slow-motion and are sometimes repeated in his films show us that the past does not die but is made present forever. Through his films, let's take the time to analogize the flow of history in the small things of our daily lives.

Eunhee Kim
Assistant Curator
MMCA Film and Video

페테르 포르가츠, 기억과 영상역사 사이에서

페테르 포르가츠(1950년생)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독립영화 감독이다. 그는 1978년 헝가리 공산주의 체제 때부터 아마추어 소형 필름이나 홈 무비와 같은 아카이브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40여 편의 얼터너티브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왔다. 그의 <사적 헝가리> 시리즈는 1930년대와 1960년대 사이 중앙 유럽의 역사에 대한 증언들을 모은다. 페테르 포르가츠는 이미지 이전의 양상들에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고 이미지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 몽타주를 사용한다. 그의 작업은 공적 이야기와 익명의 이야기들이 병렬 방식으로 교차 편집되도록 한다. 대개는 흩어져 있는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그의 작업은 공산당의 전체주의와 나치를 겪었던 유럽 가족들의 여정을 재구성해낸다. 최근 그는 헝가리 스탈린주의 시절의 본인 가족사의 변천을 부다페스트에 있는 로버트 카파 현대사진센터에서 전시했다. 또한 영상 역사에 대한 그의 사유는 다양한 퍼포먼스 혹은 멀티미디어 설치 형식(<다뉴브 엑소더스>와 <루밍 파이어>는 헬싱키 키아스마 현대미술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LA 게티 미술관, 상파울루 문화센터, 암스테르담 EYE 필름박물관 등 다양한 현대미술기관과 시네마테크에서 전시되었다)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동서 간 단절을 가져온 2차 세계대전의 영향들에 대한 사유이며 종전 후 한국이 겪은 특수한 상황들에도 해당될 수 있는 식민주의의 결과, 그리고 이주에 대한 사유이기도 하다.

페테르 포르가츠는 가장 내면적인 이야기들에 비추어 그것들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금기를 깨는 실험적 아티스트로 유럽 문화계에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그는 현재 헝가리에서 많은 비평의 대상일 뿐 아니라 유럽 역사에 대한 기여로 찰리 채플린과 잉마르 베리만에 이어 2007년 에라스무스 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받았다.

크리스티앙 페겔슨
(파리 3대학 영화학 교수)

1) Roland Barthes.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London: Vintage, 1993.

2) Péter Forgács acted as a member of the contemporary music ensemble Group 180, which one of his friends, Tibor Szemző, launched in 1978. Later, Tibor composed the soundtracks for many of Péter's films and installations.

Péter Forgács, Between Memory and Visual History

Péter Forgács, born in 1950, is a multimedia artist and an independent filmmaker based in Budapest, Hungary. Since 1978 he has been working on alternative documentary production in communist Hungary, and over the years has created more than 40 films using amateur cinema or home movie archives. His series *Private Hungary* brings together testimonials on the history of central Europe between 1930 and 1960. Péter Forgács also uses editing to give new meaning to, and to draw out hidden aspects from, the image. His work allows the stories of the nameless as well as those of the officials to intersect on the screen. Through the use of archives that were often scattered, this work has been able to reconstruct the itinerary of European families who lived through Nazi or communist totalitarian regimes. Recently at the Center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in Budapest he portrayed the tribulations of his own family history in Stalinist Hungary. Moreover, this reflection on visual history was developed around different performances or multimedia installations (*The Danube Exodus* and *Looming Fire* were exhibited in modern art museums and cinemathequ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Kiasma art museum in Helsinki, the Jewish museum in Berlin, the Getty Institute in Los Angeles, the Centro cultural do Brasil in Sao Paulo, and Eye Film Museum in Amsterdam). This reflection concerned the consequences of World War II with the world divided between East and West, but also emigration or the effects of colonization, many questions that

resonate with the specific situation experienced in Korea since the end of the war. Péter Forgács reinterprets them in the light of a more intimate though taboo history. The experimental artist Péter Forgács remains a distinguished personality of the European cultural scene. Although criticized in contemporary Hungary he has been awarded many prizes, including the Erasmus Prize in 2007 (after Chaplin and Bergman) for his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Europe.

Kristrian Feigelson
(Professor of University of Paris III:
Sorbonne Nouvelle)

상영 시간표
2016. 11. 30 — 2017. 1. 8

등급
⑥ 전체 관람가
⑫ 12세 이상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⑲ 19세 이상 관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1.30 15:00 ⑮ 나 자신의 죽음 (118min)	12.1 15:00 ⑫ 다뉴브 엑소더스 (60min)	2 14:30 [마스터 클래스] 페테르 포르가츠	3 15:00 ⑫ 마엘스트롬 - 어느 가족의 연대기 (60min) 19:00 ⑫ 엘 베로 네그로 - 스페인 내전 이야기 (84min)	4 15:00 ⑫ 헝키 블루스 - 아메리칸 드림 (100min)
7 19:00 ⑫ 허니랜드 (79min)	8 15:00 ⑫ 비트겐슈타인 논고 (33min) 상호 분석 (12min)	9 15:00 ⑫ 마엘스트롬 - 어느 가족의 연대기 (60min)	10 15:00 / 18:30 ⑮ 나 자신의 죽음 (118min)	11 15:00 ⑫ 엘 베로 네그로 - 스페인 내전 이야기 (84min)
14 19:00 ⑫ 다뉴브 엑소더스 (60min) 비트겐슈타인 논고 (33min)	15 15:00 ⑫ 헝키 블루스 - 아메리칸 드림 (100min)	16 15:00 ⑫ 엘 베로 네그로 - 스페인 내전 이야기 (84min)	17 15:00 / 19:00 ⑫ 마엘스트롬 - 어느 가족의 연대기 (60min)	18 15:00 ⑫ 허니랜드 (79min)
21 19:00 ⑫ 엘 베로 네그로 - 스페인 내전 이야기 (84min)	22 15:00 ⑫ 허니랜드 (79min)	23 15:00 ⑮ 나 자신의 죽음 (118min)	24 15:00 / 19:00 ⑫ 다뉴브 엑소더스 (60min) 비트겐슈타인 논고 (33min)	25
28 18:30 ⑮ 나 자신의 죽음 (118min)	29 15:00 ⑫ 비트겐슈타인 논고 (33min) 상호 분석 (12min)	30 15:00 ⑫ 마엘스트롬 - 어느 가족의 연대기 (60min)	31 15:00 / 19:00 ⑫ 헝키 블루스 - 아메리칸 드림 (100min)	2017.1.1
4 19:00 ⑫ 헝키 블루스 - 아메리칸 드림 (100min)	5 15:00 ⑫ 허니랜드 (79min)	6 15:00 ⑫ 비트겐슈타인 논고 (33min) 상호 분석 (12min)	7 15:00 ⑫ 마엘스트롬 - 어느 가족의 연대기 (60min) 18:30 ⑮ 나 자신의 죽음 (118min)	8 15:00 ⑫ 다뉴브 엑소더스 (60min)

* 12월 10일, 17일, 24일, 31일 토요일 저녁 상영은 미술관 주변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작품의 추가 상영이 있을 예정이니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creening Schedule
2016. 11. 30 — 2017. 1. 8

Rating
Ⓜ General
Ⓜ Under 12 not admitted
Ⓜ Under 15 not admitted
Ⓜ Under 19 not admitted

WED	THU	FRI	SAT	SUN
<u>11.30</u> 15:00 Ⓜ Own Death (118min)	<u>12.1</u> 15:00 Ⓜ The Danube Exodus (60min)	<u>2</u> 14:30 [Master Class] Péter Forgács	<u>3</u> 15:00 Ⓜ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60min) 19:00 Ⓜ El Perro Negro - Stories from the Spanish Civil War (84min)	<u>4</u> 15:00 Ⓜ Hunky Blues - The American Dream (100min)
<u>7</u> 19:00 Ⓜ German Unity@Balaton - Honeyland (79min)	<u>8</u> 15:00 Ⓜ Wittgenstein Tractatus (33min) Mutual Analysis (12min)	<u>9</u> 15:00 Ⓜ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60min)	<u>10</u> 15:00 / 18:30 Ⓜ Own Death (118min)	<u>11</u> 15:00 Ⓜ El Perro Negro - Stories from the Spanish Civil War (84min)
<u>14</u> 19:00 Ⓜ The Danube Exodus (60min) Wittgenstein Tractatus (33min)	<u>15</u> 15:00 Ⓜ Hunky Blues - The American Dream (100min)	<u>16</u> 15:00 Ⓜ El Perro Negro - Stories from the Spanish Civil War (84min)	<u>17</u> 15:00 / 19:00 Ⓜ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60min)	<u>18</u> 15:00 Ⓜ German Unity@Balaton - Honeyland (79min)
<u>21</u> 19:00 Ⓜ El Perro Negro - Stories from the Spanish Civil War (84min)	<u>22</u> 15:00 Ⓜ German Unity@Balaton - Honeyland (79min)	<u>23</u> 15:00 Ⓜ Own Death (118min)	<u>24</u> 15:00 / 19:00 Ⓜ The Danube Exodus (60min) Wittgenstein Tractatus (33min)	<u>25</u>
<u>28</u> 18:30 Ⓜ Own Death (118min)	<u>29</u> 15:00 Ⓜ Wittgenstein Tractatus (33min) Mutual Analysis (12min)	<u>30</u> 15:00 Ⓜ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60min)	<u>31</u> 15:00 / 19:00 Ⓜ Hunky Blues - The American Dream (100min)	<u>2017.1.1</u>
<u>4</u> 19:00 Ⓜ Hunky Blues - The American Dream (100min)	<u>5</u> 15:00 Ⓜ German Unity@Balaton - Honeyland (79min))	<u>6</u> 15:00 Ⓜ Wittgenstein Tractatus (33min) Mutual Analysis (12min)	<u>7</u> 15:00 Ⓜ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60min) 18:30 Ⓜ Own Death (118min)	<u>8</u> 15:00 Ⓜ The Danube Exodus (60min)

*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ollowing Saturday screenings may be cancelled, depending on the situational influences around the MMCA areas: 2016, December 10, 17, 24, 31. Please refer to the additional screenings that the relevant titles will be scheduled to the same day 3pm instead.

목차

Part 1. 페테르 포르가츠

비트겐슈타인 논고

마엘스트롬 — 어느 가족의 연대기

다뉴브 엑소더스

상호 분석

엘 페로 네그로 —스페인 내전 이야기

나 자신의 죽음

헝키 블루스 —아메리칸 드림

허니랜드

Content

Part 1. Péter Forgács

Wittgenstein Tractatus

The Maelstrom — A Family Chronicle

The Danube Exodus

Mutual Analysis

El Perro Negro —
Stories from the Spanish Civil War

Own Death

Hunky Blues — The American Dream

German Unity@Balaton — Honeyland

비트겐슈타인 논고

페테르 포르가츠 | 헝가리 | 1991 | 33min | HD

"내 눈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이 작품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책 <논리-철학논고>를 인용하는 7개의 짧은 비디오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에세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명제들과 관련이 있다. 20세기 초에 촬영된 유럽의 홈 무비들에 나레이터의 목소리와 <논리-철학 논고>에서 발췌한 문장들, 그리고 음울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이 더해졌다. 부르주아의 생활을 담은 장면들에서는 다가오는 미래의 불길한 전조가 느껴진다. 페테르 포르가츠는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괴리를 그려내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언어, 현실, 재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는 상징적 접근법을 고안했다.

Wittgenstein Tractatus

Péter Forgács | Hungary | 1991 | 33min | HD

"How hard I find it to see what is right in front of my eyes!" —L. Wittgenstein

Seven short video essays that refer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with each essay relating to one of Wittgenstein's philosophical propositions. Home movies from early 20th century Europe are accompanied by voice-overs and written texts from *Tractatus*, and a somber, lyrical score. Scenes of bourgeois life are haunted by foreboding of the future. Drawing up the disjunction between language and image, Hungarian filmmaker Péter Forgács created a symbolic approach of Wittgenstein's theories of logic, language, reality and representation.



마엘스트롬—어느 가족의 연대기

페테르 포르가츠 | 네덜란드 | 1997 | 60min | HD

<마엘스트롬>은 피레봄(Peereboom)가의 대가족에 관한 영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과 발발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촬영된 상당 양의 홈 무비들을 탁월한 예술적 기법으로 이용한다. 영화의 내용은 자막을 통해 전달되며, 사운드 트랙은 나레이션 없이 주로 라디오 방송과 헝가리 미니멀리스트 작곡가 티보르 쉘죄(Tibor Szemző)가 작곡한 우울하고 심란한 재즈 선율로 이루어진다. 스크린에 등장하는 가족은 홀로코스트의 그림자 속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는 한 유대인 가족으로, 이후에도 다가오는 위협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에 대응하려고 한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작품 속 사진 작가 막스 피레봄(Max Peereboom)과 그의 가족은 "노동 캠프"에 가기 위해 즐겁게 바느질을 하거나 일상적 준비를 하는데 사실 그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악몽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어떤 할리우드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보여주지 못했던 '최종적 해결'*에 대한 엄청난 충격적인 진실을 전달한다.

*The Final Solution, 나치스 독일에 의한 유대인의 계획적 말살

The Maelstrom—A Family Chronicle

Péter Forgács | Netherlands | 1997 | 60min | HD

The Maelstrom makes extraordinary artful use of considerable cache of home movies shot in the Netherlands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and dealing with the extended Peereboom family. Information is conveyed through subtitles and instead of voice-over, the soundtrack consists of period sound, usually from radio broadcasts, and brooding, disturbing jazz score by Tibor Szemző. What we see is a Jewish family first living unknowingly in the shadow of the Holocaust and then trying to cope with it still unaware of what it will finally mean. A shot of the film's photographer Max Peereboom, and his family we've come to know, cheerfully sewing and doing general preparation for a trip to a "work camp" when their destination was in reality the nightmare of Auschwitz adds a devastating dimensio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Final Solution that nothing else, no Hollywood movie, no documentary, has been able to provide.



다뉴브 엑소더스

페테르 포르가츠 | 네덜란드 | 1998 | 60min | HD

페테르 포르가츠는 여행기라 할 수 있는 <다뉴브 엑소더스>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탈출하는 유대인들의 여정을 담았다. 두 개의 배에 나누어 탄 900여 명의 슬로바키아계 유대인과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려고 다뉴브강을 통해 흑해로 나아갔다. 포르가츠는 한 배의 선장이었던 난도르 언드라스비츠(Nándor Andrásovits)가 촬영한 아마추어 필름을 이용하여 그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언드라스비츠 선장은 기도하는 승객, 잠자는 승객, 심지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승객 등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그 항해의 끝에 그 배가 빈 채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반대 방향의 탈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소련의 베사라비아(Bessarabia)의 침공 때문에 제3제국*으로 피신하는 베사라비아 독일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The Third Reich,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히틀러 치하의 독일

The Danube Exodus

Péter Forgács | Netherlands | 1998 | 60min | HD

In the travelogue *The Danube Exodus*, he documents the Jewish exodus from Slovakia just before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In two boats, a group of nine hundred Slovak, Austrian Jews tried to reach the Black Sea via the river Danube, in order to get to Palestine from there. Forgács based his film on the amateur films of Captain Nándor Andrásovits, the captain of one of the boats. He filmed his passengers while they prayed, slept and even got married. At the end of this journey, it is clear that the boat will not return empty: a reverse exodus takes place, this time of repatriating Bessarabian Germans, fleeing to the Third Reich because of the Soviet invasion of Bessarabia.



상호 분석

페테르 포르가츠 | 헝가리 | 2004 | 12min | HD

재지와 나는 14년 동안 매일같이 서로를 분석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면서 평온했다. 우리는 무관심 대신 어떤 의미를 품고 함께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종종 관계 문제, 심신의 불안감, 공황적 발작, 열정적이면서도 불만스러운 우정, 공존, 연인들의 꿈, 그녀의 조상과 관련된 원형적 연관성 등에 관해 나와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은 날에는 수다스러워지곤 했는데 그녀의 언제나 좋은 기분, 즉 그녀의 천성에 바탕이 되는 그 상냥하고 꼬리를 살랑대는 태도에 놀라는 나를 다정하게 관찰하곤 하였다.

많은 고심 끝에 정신분석가 페렌치 박사는 나에게 상호 분석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물론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다정함과 헌신이 전제된 다음에. 재지와 몇 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그녀는 이 영상 일부를 촬영하는 데에만 동의했을 뿐이다. 솔직히 나는 왜 특정부분에만 동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히도 재지가 이른 나이에 죽을 경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 이 엄청나게 가치 있고 방대한 영화 자료가 향후 75년 내에 대중에 공개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재지의 마지막 바람이 그럴 것이므로.



Mutual Analysis

Péter Forgács | Hungary | 2004 | 12min | HD

Day in day out, for fourteen years Zazie and I analysed each other. In a word, it was not a casual affair; our relationship was intimate but placid. One might say we served time and each other meaningfully, not indifferently. She would often come to me to discuss relationship problems, psychosomatic anxieties, fits of panic, passionate and frustrating friendships, parallel existences, the dreams of lovers, archetypal associations related to her ancestors. At other times, in an excellent mood, she'd be talkative, tenderly observe my wander over her eternal good mood, that friendly and tail-wagging attitude that was basic to her nature.

After much deliberation Dr. Ferenczi suggested I should try mutual analysis; having made, of course, adequate preparations, given the tenderness and devotion (a satisfactory blend of samurai loyalty and Budapest hysteria). And so, after Zazie returned, I asked Simon whether he'd be prepared to film the subject if Zazie would be willing cooperate -with her consent. He was very eager to help. Although Zazie and I carried on for months, she only agreed to screen this excerpt. To be honest, I don't really understand why this particular one, but there we go! Otherwise, unfortunately not even Zazie's premature death (too many cigars!) will allow for this immensely valuable and voluminous film material to be brought to public in the next 75 years—in accordance with what would be Zazie's last wish.

엘 빼로 네그로 — 스페인 내전 이야기

페테르 포르가츠 | 프랑스 | 2005 | 84min | HD

<엘 빼로 네그로>는 매혹적인 영상들로 편집된 콜라주를 통해 스페인 내전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을 보면서 왜 아나키스트 '잔인한 왕 페드로 (Pedro el Cruel)'가 아마추어 영화감독 살반스 (Salvans)를 살해했는지, 그리고 왜 스페인 군대가 스페인 공화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아마추어 영화감독들의 이미지와 이야기 그리고 양편을 위해 싸운 공화주의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영국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미국인 등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스페인의 혼돈 속 10년을 통과하게 된다.

<엘 빼로 네그로>는 개인적 사건들, 잘못, 신념, 오해와 절망, 미친 전쟁의 보이지 않는 측면 등에 관한 이야기한다. 노동자들의 자치정부에 관한 실험, 시민들이 겪은 수많은 고통, 나라의 분열, 혁명에 관한 환상, 살인, 잔혹한 프랑코에 의한 조직적 학살 등으로 인해 극작가이자 철학자인 미겔 데 우나무노, 시인이자 극작가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 시인 미겔 에르난데스, 아나키스트 혁명가 부엔나벤투라 두루티, 왕당파, 팔랑헤당의 전 우주는 영원히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이데올로기의 발흥과 몰락 그리고 개인적 상실감이 우리 눈 앞에 다가온다. 이러한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들의 영상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서곡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 내전의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일면들을 드러낸다.



El Perro Negro — Stories from the Spanish Civil War

Péter Forgács | France | 2005 | 84min | HD

El Perro Negro takes a clichés braking view of the Spanish Civil War trough a mesmerizing found footage collage. While searching for answers we travel through Spain's chaotic decade with the images and stories of several amateur filmmakers and their memories focusing on all sides of the front like republicans, anarchists, Communist, and the foreigner Brits, Germans, Italians, Americans, who fought on both side.

El Perro Negro telling personal dramas, faults, faiths, illusions and desperation, the unseen side of an insane war. The workers self-government experiments, the multitude sufferings of civilians, the schism of the divided country, the revolutionary illusions, murders and the systematic massacres orgies of Franco's brutality changed once and for ever the universe of Unamuno, Lorca, Buñuel, Hernandez, Durruti, the royalists, and the Falangists. The rise, and fall of ideas, the final personal losses come near to our eyes. The unseen private films reveal the cruel and beautiful sides of the Spanish times - as a prelude to the World War II.

나 자신의 죽음

페테르 포르가츠 | 헝가리 | 2008 | 118min | HD

헝가리 소설가 페테르 나더쉬(Péter Nádas)의 소설 <나 자신의 죽음(Own Death)>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장 가까이 오고 가는 여행.

"죽는 일은 힘든 일이다 특히 교정쇄를 급히 끝마쳐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페테르 나더쉬는 단편소설 <나 자신의 죽음>에서 이것을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제 페테르 포르가츠가 연출한 이미지에서 그것과 대등하게 훌륭한 등가물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영화감독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인디아 송 (India Song)> 이후로 문학과 영화의 협업이 나더쉬의 이야기를 담은 포가치의 작품에서만큼 성공한 작품은 없었다." — 피터 델푸트(영화감독)

Own Death

Péter Forgács | Hungary | 2008 | 118min | HD

A film based on Péter Nádas' *Own Death* novel. A trip nearest to the boundaries of life and death: back and forth.

"Dying is a tough job, especially when one has to finish urgently some galley proofs. Peter Nádas has evoked this brilliantly in his short novel *Own Death*. And it has now an evenly brilliant equivalent in the imagery Peter Forgács designed for it. Hardly ever since Marguerite Duras' *India Song*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literary and the cinematic have been so successful as in this Forgács film of the Nádas story." — Peter Delpeut(Director)



헝키 블루스—아메리칸 드림

페테르 포르가츠 | 헝가리 | 2009 | 100min | HD

페테르 포르가츠는 1890년과 1921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수십만 헝가리인들의 삶에 주목하고 그들의 운명을 추적한 시적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는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초기 영화, 영상물, 사진, 인터뷰 등을 엮어 이 거대한 장편영화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헝가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그곳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힘겨운 과정들을 보여준다. 이런 시간들이 결국 이후 세대들의 행복에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다.

Hunky Blues—The American Dream

Péter Forgács | Hungary | 2009 | 100min | HD

Péter Forgács the reknown Hungarian filmmaker composed a poetic documentary exploring the fate of hundred thousands of Hungarian men and women who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between 1890 and 1921. To tell their sagas Forgács weaved this grand epic from the early American cinema, found footage, photographs and interviews. The film reveals the difficult moments of arrival,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which eventually fed the happiness of the later generations and their fulfillment of the American dream.



허니랜드

페테르 포르가츠 | 헝가리, 독일 | 2011 | 79min | HD

<허니랜드>는 동유럽의 놀라운 전후 역사를 인상적으로 묘사한 시적 작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의 발라톤 호수를 헝가리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이상입니다. 그 호수엔 어떤 부드러움과 열림이 있어요. 하나의 풍경으로서도요. 헝가리로 흘러 들어오던 동독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발라톤 호수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러요. 그 호수가 오늘이나 내일 또는 한달 간의 휴가 동안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뭔가를 할 때 마치 양탄자처럼 많은 소리와 그림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시작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발라톤 호수의 반짝이는 물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리히 그뤼너트

German Unity@Balaton—Honey Land

Péter Forgács | Hungary, Germany | 2011 | 79min | HD

German Unity@Balaton - Honeyland is a poetic impression of an extraordinary postwar history of East-Europe.

"Many people say that the Hungarian Balaton is the Hungarian Sea. But in my view it's much more than that. There is some kind of softness and openness, as a landscape too, towards those, thereby all the Eastern-Germans, who have been flowing towards Hungary; it stays in their hearts forever. It does not matter how the water looks like today or tomorrow, these times worth more than four weeks of vacation, and it's hard to put it in words. But I think the thing that You are doing here, and there are lots of sounds and pictures, as in a rug, so if we are going to take a look, we will see, what this all has started. I think the fall of the Wall can be thanked to the sparkle of the Balaton." —Ulrich Grunert



다음 프로그램

이야기의 재건 3 : 절대적 시간, 몸의 구현
Part 2. 데이비드 갠트 & 케빈 제롬 에버슨

Next Program

Reconstruction of Story 3 : Absolute Time and
Materialization of Cinematic Body
Part 2. David Gatten & Kevin Jerome Everson



데이비드 갠트, <눈부신 그림자들>
David Gatten, *The Extravagant Shadows*



케빈 제롬 에버슨, <이리>
Kevin Jerome Everson, *Erie*

프로그램 행사

페테르 포르가츠—마스터 클래스

일시 2016. 12. 2(금) 오후 2시 30분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진행 크리스티앙 페겔슨
(파리 3대학 영화학 교수)

Program Event

Péter Forgács—Master Class

Date Dec.2, 2016(Fri), 2:30pm

Venue MMCA Film and Video

Moderator Kristian Feigelson
(Professor of University of Paris III:
Sorbonne Nouvelle)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10am—6pm
수, 토: 10am—9pm

MMCA필름앤비디오 관람시간

목, 금, 일: 10am—6pm
수, 토: 10am—9pm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9pm)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11pm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am—6pm
Wed, Sat: 10am—9pm

MMCA Film & Video Opening Hours

Thu, Fri, Sun: 10am—6pm
Wed, Sat: 10am—9pm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Under 24s or over 66s: Free
Free admission every Wednesday &
Saturday from 6pm—9pm

Parking

Daily Hours: 8am—11pm
2,000 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
artmu.mmca.go.kr
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Kor)
facebook.com/nmmcakorea (Eng)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